남의 말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중심에 의해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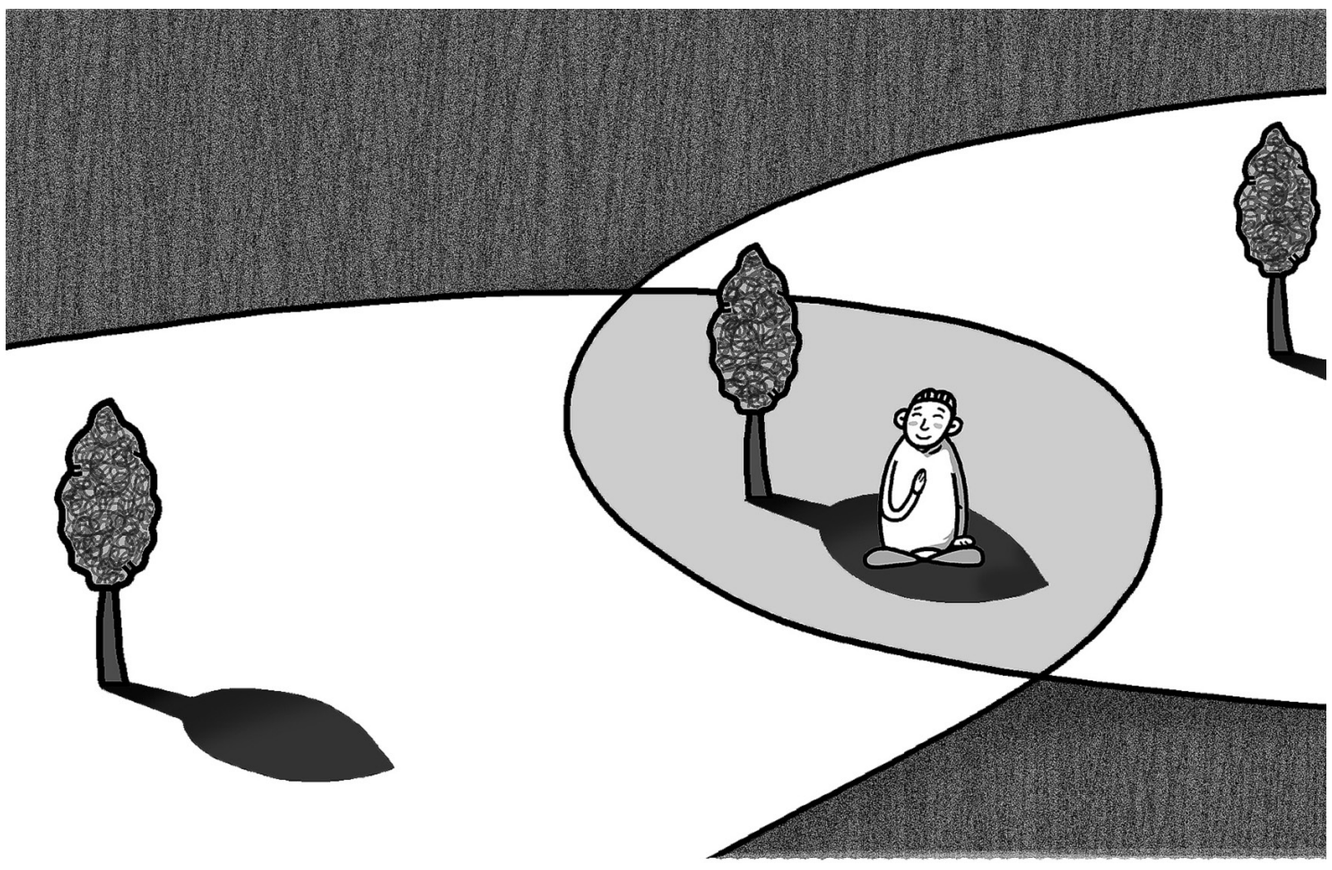
공부가 여일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환희심도 생기고 관하면 되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관해도 안되는 것 같고 답답해서 다른 수련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중심 잃지 않고 여일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리가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자기는 자신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될 때, 또 답답할 때 이런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도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지, 항상 켜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밤낮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다가 잔잔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일죠. 그러니까 파도와 잔잔한 물이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알맞은 일들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즉, 배우가 영화 하고 나면, 한마디 하고 나면 괜찮듯이 그런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습하려면 '어, 날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르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드는구나.' 하고 그냥 바로 직접 저거 하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건데 얼마 동안은 되더니 지금은 잘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니깐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하더라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고선 거기다 맡겨 놓을 때, 인제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고선 가게 되면 실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문이 열리는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치고 안 깨치고, 벌써 본래 깨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딱 막아 놓고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죽어서도 절대로 떳떳하고 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아야 어디든지 내 자유껏 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건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즉 말하자면 살아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인가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에 따라서 이 공부를 해서 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또 나와서 고생하기가 싫으니까 자원해서 나간다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구지비끼리 해라." 이렇게 해서 뽑아서 여기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러더러 있다 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깐 여러분도 언제나 이 중세계에서만 뒹굴면서 그 불쌍한 그 모든 생명들을 보고 살고 또 그 생명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중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차원이 높아서 참 한 세계의 한 도량으로, 제불의 도량으로 한데 모여서 참 그, 요새 은비까비? 은비까비처럼 그렇게 나오란 말은 아니지만요,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을 거기 앉아서 알고 다 도와 줄 수 있고 건져 줄 수 있고 이럭하게끔 한다면 자기네 자손들도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대대 종손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자기 선장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봐라." 그런 거죠. 벌써 그러면 맡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 놨습니다." 이럭하고 말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놓질 못하고 부지런히 와서 그냥 그 사단을 애길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론만 얘기하고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겪는 모든 얘기를 쫙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거기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방방 뛰지, 어떻게 안 뛰겠습니까?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런 걸 해결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고등 동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에도 진짜 사람이 돼야 부처님 한도량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고를 고라고 생각하면 고가 되는 거고, 고를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다' 하고선 집착을 한다면 그건 멸이 되질 않아요. 그래 도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도가 되느냐, 도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망상의 길을 걷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한 철 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부처님, 제불 한도량을 이루나.'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하고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지금 사는 거 한 철 그저 '배고프다, 못 입는다, 돈이 없다, 뭐, 어디 취직이 안 된다, 취직해서 다니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벅석거리면 오히려 그것이 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거 떨어지게 한 것도, 굶기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바로 네가 하는 거니까 너만이,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대로 편안해야 해요. 그건 뭐, 몸뚱이가 펄펄 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마음의 부처 속에서 나오는 그 보살들이 전부 응신이 돼서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거 자기 몸뚱이가 이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제 또 때로는 이렇게도 되는 수가 있죠. 이 한군데를 믿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한 뿌리를 믿고 그냥 의지하고 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그러지 않고 이 나무에서 저거 하다가 '에이그, 또 저기 가서 한번 또 해 봐야겠다.'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못 되죠. 정말 진짜로 바다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가 이 세상에 형성돼서 나온 구녁도 그 구녁이고 들어갈 구녁도 그 구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보다도 살아서 들어가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자꾸 닿는단 말입니다. 관하면 자꾸 닿아요. 닿아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이렇게 관해도 이렇다고 하면서 그냥 모두 그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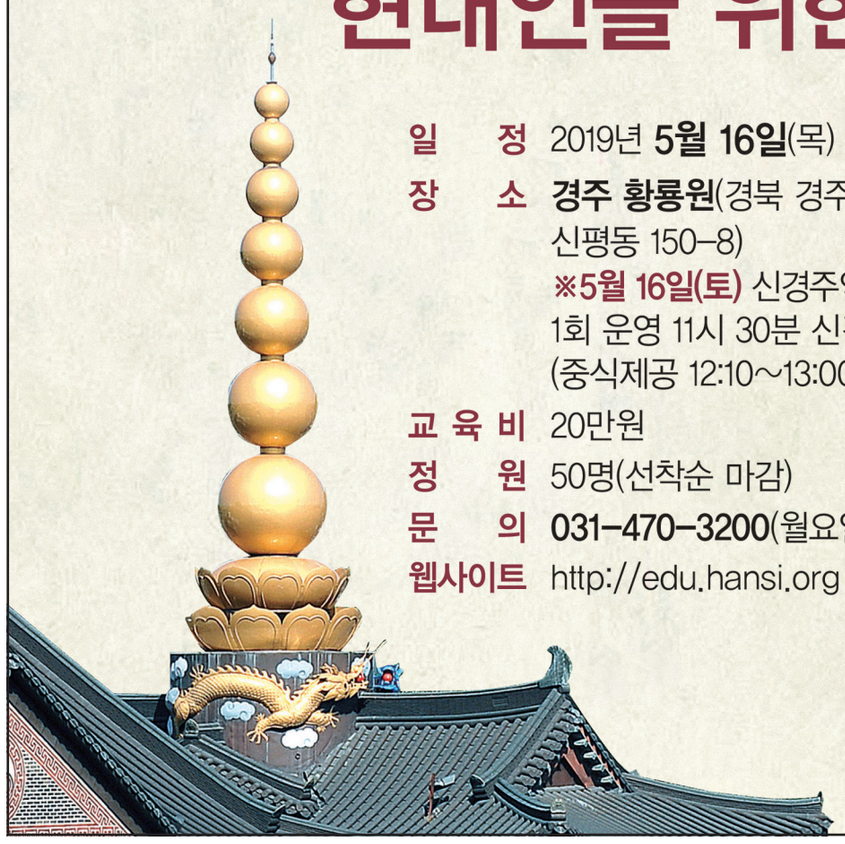
여러분들과 내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걸 내버렸어요. 내버린 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다. 만나도 만난 게 없고 또 가고 와도 가고 온 게 없고, 모두 제자리걸음이고, 모두 하나도 한 게 없다.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큰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가 돼서, 그게 자불이 통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죽는다 하면 거기에 푹 그냥 '이거 어쩌면 좋은가.' 하고 야단법석들을 하시는데, 친척들이 죽는다 이래도…. 그래서 내가 친척들한테도 식구들한테도 모두가 미리미리 관하는 도리를 알려 주라 하는 거죠. 급하면 그래도 나올 테니까, 안 하다가도. 그러니 때로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왔을 때에 제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신도상담과 지도방안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